

# 전남교육감 “교육장 22명 보직 사퇴하라”

### 간부 96명 12일까지 제출 요구 9월 인사서 선별 수리할 듯 대대적 쇄신 인사 예고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9일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간부 공무원들에게 오는 12일까지 전직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장 교육감이 9월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간부공무원 일괄 보직사퇴서를 받는 형식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내지 재신임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당선인 인터뷰(광주일보 2018년 6월27일자 3면)에서 강한 인적쇄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이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전직신청서 제출요구 대상자는 모두 96명이다. 전남 22개 시·군 교육장, 본청 과장 이상 간부 등 장학관, 교육연구정보원 등 직속 기관장, 연구부장 등 교육연구관이 대상이다. 관례라면 이들 보직은 통상 2년 임기가 보장돼온 자리다.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일괄 보직사퇴서라고 보면 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깜짝인사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직신청서 제출 대상 간부와 하반기 정기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위해 13일 인사 테스트(TF)를 꾸리겠다.

TF는 장 교육감이 인사 원칙으로 평소

밝혀왔던 능력, 개혁성, 도덕성이다. 교육감 공약이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정기인사에 반영한다. 인사 대상자들의 희망 보직도 참고한다.

장 교육감이 일괄 보직사퇴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교육청 안팎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우선 제출시한을 불과 3일로 못박은 것을 두고도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쇄신과 발탁이라는 교육청의 설명에도 교육청 안팎에서는 보복 인사, 선거 관련 보은과 특혜 인사, 전교조 중심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측은 ‘전남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 언급된 장학관, 연구관 등의 임기 2년은 ‘근속상환연한’을 규정된 것이며,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임기가 없

으며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인사시기에 맞춰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에서 37년간 평교사로 근무했던 장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부터 강도 높은 인사혁신을 예고해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전남도교육청 인사적폐’를 거론하며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의 경우 인사가 있어서 패밀리그룹들이 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이를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인사에 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에서 저를 지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감정적, 표적 인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마철 소방시설 점검 광주북구청 문화관광과와 북부소방서 직원들이 9일 중흥동에 있는 한 영화촬영관에서 재해발생 대비 소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전두환 이번엔 ‘광주 5·18 법정’ 설까 16일 명예훼손 혐의 재판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은 11일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확인하고 재판 절차, 진행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측이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내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한차례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법정에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도 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아직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지 않고 광주에서 그대로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사망

1987년 고(故)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사인을 단순 소크사로 은폐하려 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지난 6일 밤 11시40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1933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강 전 본부장은 6·25전쟁 참전했다. 종전 후 경찰에 입문해 1986년 1월 제10대 치안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듬해인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가 서울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 끝에 숨졌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강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열사가 ‘목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이 나왔음에도 언론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며 박 열사의 사망 원인을 단순 소크사로 위장하려 했다.

이후 경찰이 사인 은폐를 위해 부검의까지 회유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강 전 본부장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1993년 유죄가 확정됐다.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대항가와 재야 운동권 등 군사정권에 저항하던 이들을 결집, 1987년 6·10항쟁을 불러온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달맞이 02:35
	해질녘 19:49	달짐 16:41

다시 찜통 더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23/32	보성	구름 많음	21/28
목포	구름 많음	24/31	순천	구름 많음	22/30
여수	구름 많음	22/28	영광	구름 많음	23/32
나주	구름 많음	22/31	진도	구름 많음	23/29
완도	구름 많음	23/29	전주	구름 많음	23/32
구례	구름 많음	21/31	군산	구름 많음	22/31
강진	구름 많음	22/30	남원	구름 많음	21/32
해남	구름 많음	22/30	축산도	구름 많음	21/27
장성	구름 많음	22/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먼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2.0~3.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먼바다(동)	동~남동	1.0~2.0	동~남동	2.0~3.0
	먼바다(서)	동~남동	1.5~2.5	동~남동	2.0~3.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49	11:12
	16:58	--:--
여수	00:16	06:24
	12:31	19:12

◇주간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	☁	☁	☁	☁	☁	☁
	24/33	24/33	24/32	24/32	24/32	24/33	24/32

## 전문가도 헛갈리는 식용·독버섯 구분 장마철 야생 버섯 주의보



장마철을 맞아 식용버섯과 구분이 어려운 ‘야생독버섯 중독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독버섯 중독으로 모두 7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독버섯 중독은 장마철인 7~10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1900여종의 버섯 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00여종(21%)에 불과하다. 일부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모양·색깔이 비슷해 구분이 어렵다. 대표적인 게 개암버섯(식용)과 형태가 유사한 노란다발이다. 노란다발을 먹을 경우 구토와 설사, 심하면 비명과 시력 손상을 가져온다.

어린 영지(식용)와 비슷하게 생긴 붉은사슴뿔버섯도 주의해야한다. 붉은사슴뿔버섯은 맹독 ‘트라이코세신’을 지니고 있어 먹으면 치사율이 높다. 이 두 버섯은 건조 가공된 상태에서는 전문가도 구분이 어렵다.

진흥청 관계자는 “독버섯을 구분할 수 없다고 알려진 민간 속설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독버섯을 섭취해 중독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며, 먹은 버섯도 가져가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회산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